

케빈 E. 프레데릭 박사, 발덴시아인, 강의 7, 진리로의 회귀, 여성 설교자

© 2024 Kevin Frederick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왈도파의 역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케빈 프레데릭 박사입니다.
이것은 7번째 세션, 진실로의 회귀, 여성 설교자들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진실로의 회귀라고 불리며, 왈도파 여성들과 그들이
신앙에서 수행한 역할을 따릅니다.

물론, 그들의 사역, 즉 월도의 사역의 아주 초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12
세기에 설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여성이 리더십
역할을 맡는다는 이해의 근거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아주 초기 교회에서도
왈도파는 여러 구절을 살펴보고, 지금 그 중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향료를 가져와서 가서 그에게 기름을
바르려고 했습니다.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 해가 뜬 후에 그들은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무덤 입구에서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줄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올라다보니, 매우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오른쪽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셨고,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그를 두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말하여라. 거기서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그를 볼 것이다

.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는데, 공포와 놀라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명령되었고, 그들은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 자신이 그들을 통해 동쪽에서 서쪽까지 영원한 구원의 신성하고 썩지 않는 선포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는 주일 첫날 일찍 일어나신 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녀는 나가서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애통해하며 울고 있는 동안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가 살아 계시고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초점은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루칸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의 추종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라고 권고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다음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로 갑니다.

이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서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징계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징계하는 자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다 하나임이니라.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람의 자손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발도파 여성들은 50년 이상 공개적으로 전도했지만, 13세기 후반에 로마 교회가

발도파 여성들을 폭력적으로 박해한 직접적인 결과로, 그들은 외부 세계에서는 눈에 띄지 않지만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그들의 신앙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소로레스 [라틴어로 자매라는 뜻] 라고 불리는 그룹에서 , 우리는 소로리티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여성 발도파 제자도의 초점은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발도파 자매회라고 부를 수 있는 소로 레스는 발도파 공동체 내에 호스피스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역을 재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스피스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궁핍한 여성에게 환대를 베푸는 관행을 위해 여성들이 운영하고 관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호스피스 중 다수에서 소로 레스는 순회하는 발도파 목사인 바르바를 준비하기 위한 숙소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발도파 신학교와 학교의 선구자가 될 것을 시작했습니다. 소로 레스라는 칭호는 복음을 전파하는 더 눈에 띄는 부름을 맡은 남성과 여성 간의 동등한 파트너십의 역할을 전달했습니다. 소로레스 조직에 구현된 이러한 파트너십 역할은 발도 파 신앙 공동체의 증언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으며, 유럽 전역에 두 명씩 팀을 이루어 목사를 파견하는 발도파 선교 및 복음주의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도래하면서 개신교 기독교에 가져온 급진적인 변화와 발도파의 사역에 대한 강조점은 순회 전도 형태에서 지리적으로 고정된 신앙 공동체와 예배소에서 목사로 봉사하는 것으로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개혁 운동에 가담한 직후 발도파 설교자들은 더 이상 발도파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지 않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학교와 신학교로 갔습니다 . 그 결과, 소로레스 의 사역 과 발도파 순회 설교자 바르바의 지원 및 훈련은 중요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소로레스의 영향력의 실마리를 오늘날의 발도 파 가 어린이와 시민의 교육의 중요성에 집중하고, 발도 파의 환대 시설인 포레 스타리아 를 설립하고, 사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 집중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발도파 사역의

이러한 모든 구성 요소는 소로레스 사역의 강조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현대 용어로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을 부르는 것은 집사 사역일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제 1940년대 후반으로 넘어갑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 발도파 교회에 새로운 역동적인 변화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변화한 것입니다. 주로 주부로 봉사하던 것에서 일과 전문직 세계에 진출하고, 직업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일로 정의되었습니다.

발덴시아 교회에 영향을 미친 두 번째 주요 변화는 목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남성의 상당한 감소였습니다. 1948년까지 이러한 문제는 매년 8월에 열리는 발덴시아 시노드 회의에서 다루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장로교의 총회와 유사한 발덴시아 교회의 행정 위원회인 타볼라 발데스가 목회에서 여성 소명 문제를 연구하도록 처음 요청받았습니다.

연구 초기의 문서는 연구를 하는 남성들의 편향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초점은 사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 아니라 여성이 특정 유형의 사역 기능에 가져온 특정 은사에 대한 탐구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발도파 신학교의 조반니 미게 교수는 이 세 가지 특정 문제, 즉 보조 사역, 여성 사역, 발도파 교회의 통치 기구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다루도록 지시받은 세 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연구팀을 이끌도록 임명되었습니다.

이 논쟁의 처음 11년 동안, 총회와 저술에서 초점은 사역에서 여성의 역할보다는 여성 사역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구분은 약간 모호하게 보일 수 있지만, 강조는 일요 학교, 청소년 활동, 여성 그룹, 방문 사역, 여성 교회 일꾼에 대한 일부 행정과 같은 사역의 특정 하위 기능을 분류하는 편견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성은 안수받은 성직자였으며,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전을 집행하고, 교회의 주요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동 분담은 가장 큰 발덴시아 교회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 논쟁의 초점은 대부분의 발덴시아 교회에서 일하는 여성을 임의로

배제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전문 직원을 부양하기에는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1954년까지 발덴시아 시노드는 방문 사역, 종교 교육 및 여성 사역을 수행하여 남성 성직자와 협력할 수 있는 여성인 교회 보조자의 역할을 채택하고 확립했습니다.

사역에서 여성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편견 때문에 논의의 초점은 성직자 사역에서 여성의 역할에서 벗어나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이라는 더 다루기 쉬운 주제로 옮겨갔으며, 방금 설명한 대로 대규모 발도파 교회에서 봉사하는 보조 여성 조수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1940년대 후반과 50년대에는 이와 동일한 의견이 미국 주류 기독교에서 널리 퍼져 있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러한 강조로 인해 1950년대 내내 모든 논의가 성직자 사역에서 여성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문제는 이탈리아 토레 펠리치에서 매년 8월에 남성 성직자와 장로 그룹이 주최하는 시노드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주장과 성직자로서의 여성 은사에 대한 반대 주장이 제기되곤 했지만, 토론을 지켜보는 여성이 드물기는 했지만, 남성만 발언했기 때문에 반박받지 못했습니다. 50년대 말에 열린 한 총회에는 여성이 여덟 명이나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경청하러 왔지만, 남성 교회 지도자들이 토론에 참여하라고 고집하자, 여성 두 명은 주저하고 소심하게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토론되는 문제에 대한 조직적이고 표현된 여성의 관점이 없다는 것이 모든 참석자에게 분명해졌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잘 발달된 입장이었고, 일반적으로 합의된 여성의 관점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1949년 초에 Miegge 교수는 갈라디아서 328장과 그 참조인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남성이나 여성이 없다는 것을 평등의 기본 원칙으로 인식했으며, 이는 복음의 정신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미에게는 1949년 보고서에서 교회가 여성 사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조정할 의무는 아니더라도 완전한 권리가 있다고 결론지으며 갈라디아서 3

28장에 있는 평등의 절대적 원칙을 전달했습니다. 미에게는 이 바울의 서신이 바울 신학의 중심이라고 본 것이 옳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받는 세례 공식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이미지이며, 연합이 사회적 분열을 변화시키는 새 창조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그리스인, 종과 자유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새 창조 안에서는 성별 역할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믿음은 식별 요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각자 새로운 창조물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언약의 자녀와 같습니다. 10년간의 연구 끝에, 1950년대 후반에 미에게 교수는 여성 성직 안수라는 어려운 문제를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탐구했으며, 유럽 전역에서 여성이 다양한 리더십 역할을 맡은 몇몇 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탐구했습니다.

Miegge는 마침내 교회가 여성들이 사역에서 경험에 근거하여 의미를 실험하고 발견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1959년, 발도파 교회의 통치 기구인 Tabola는 Ms. Carmen Trobia에게 Ceteroni는 로마의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여름 내내 교회를 전담하는 보조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회중과 Trobia 씨에게 이 긍정적인 경험은 안수받은 사역에서 여성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토론을 전환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1960년, 8월의 총회에 앞서 발덴시아 여성 연합 대회가 열렸습니다. 며칠 후, 총회가 소집되었을 때, 총회는 여성들로부터 첫 공식 의견을 듣고, 사실상 성직자 사역에서 여성의 역할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와 함께 그해 발덴시아 교회에 여전히 성직자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합쳐지면서 목회에 필요한 자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부터 1962년까지 토론은 시노드에서 확대되어 이탈리아 교단 전역의 지역 교회에 있는 발도파 신자들의 의견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1962년에 시노드가 소집되었을 때, 지역 교회의 토론에서 다양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타볼라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여성이 영혼을 돌보는 데 있어 남성보다 권위를 얻을 것이라는 우려에 근거한 상당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해 온 타볼라는 이 우려를 다루며, 목사의 권위는 성별이나 성격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와 사역의 직분을 행사함으로써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반대는 무효화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제기된 두 번째 우려는 여성이 사회적, 생활 방식적 이유로 목사직의 무거운 책임을 맡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타볼라는 사역에 부름받은 남성들이 동일한 유형의 어려움과 선택에 직면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세 번째는 목사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여성을 남성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였으며, 이는 교회가 사역을 목사의 손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며 모든 신자의 신권을 구현하는 데 교회 회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인식으로 반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기된 반대는 경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성직자 리더십 직책을 놓고 경쟁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타볼라의 반응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여성에게 목회직을 개방하는 것이 목사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성 목사가 항상 소수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1962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총회에서 이러한 우려 사항을 모두 해결한 후, 발도파 교회는 다수결로 여성 성직 안수의 문을 열었습니다. 1967년 8월, 카르멘 트로 비아 를 포함하여 신학교에서 교육받은 최초의 두 명의 여성 발도파 목사가 성직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읽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역사적 맥락을 연결하면서, 나는 미에게 교수 가 발도파 운동의 초기 수십 년 동안 여성의 역할을 지적하여 여성 성직 안수를 정당화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1962년이 되어서야 고대 교회에 대한 최초의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2세기 말과 13세기 초에 여성이 설교했다는 사실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교회 지도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1961년에 발도파 공동체 전체가 이 자랑스러운 유산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발도파 여성에 대한 주제별 연구는 오늘날에도 비교적 탐구되지 않은 학술 연구로 남아 있습니다. 이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돌아보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째, 1세대 발도파가 성경을 고수하고 실천하는 데 얼마나 급진적으로 이끌렸는지, 스스로 성경을 해석했을 때 로마 가톨릭 교회에 공개적으로 도전할 만큼 감히 그랬는지. 둘째, 성경 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1세대 발도파 남녀의 역동적인 믿음의 증거를 따라잡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에 놀랐습니다. 800년 후,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오래 전에 인식했던 것과 같은 진보적이고 신앙에 기반한 복음 메시지에 대한 방향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완전한 순환을 이루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것은 여성 설교자에 대한 설교와 여성 설교자에 대한 중세 교회의 대응인 Muffled by Contempt의 계속입니다.

12세기 초에 여성 발도파는 마리아 막달레나, 여선지자 안나, 그리고 프리실라와 도르가와 같은 다른 초기 여성 제자들의 성경적 증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파할 정당성을 찾았습니다. 여성들은 1180년 초에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전에도 복음을 전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1180년에 가톨릭 주교 베르나르 드 클레르보의 비서인 오세르의 제프리가 프랑스 도시 클레르몽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교 베르나르 드 클레르보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두 발도파 여성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 두 여성은 이단자로 고발당했고 나중에는 매춘부로 낙인찍혔습니다. 12세기 후반과 13세기 초반에 남녀 발도파가 설교했을 때, 그들의 메시지는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낭송했고 사람들에게 죄를 고발하고 잘못을 회개하라고 공개적으로 권고했습니다.

12세기에 로마 교회가 작성한 수많은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본적인 수준의 선포조차도 로마 교회에서는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그 후 50년 동안 양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오세르의 제프리는 발도파 공동체 내의 여성 설교자들을 캐리커처로 묘사하며, 그들을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 창녀 이세벨과 동일시했습니다.

그것은 아합 왕과 결혼하고, 선지자 엘리야를 반대하고, 바알 신의 열렬한 추종자가 된 열왕기의 옛 이세벨과 같습니다. 제프리는 여성이 교회에서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6절을 인용하여 여성을 죄로 가득 찬, 호기심이 많고 수다스럽고, 뻔뻔스럽고, 뻔뻔스럽고,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비참한 작은 여성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속에 모든 것을 침묵 속에 간직한 것을 완벽한 여성성의 모범으로 여겼습니다.

베르나르 드 풍코드는 마리아를 완벽한 여성 모델로 묘사했습니다. 1180년대부터 1190년대 초까지 그는 발도파 여성 설교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글을 썼으며, 교회법이 허가받지 않은 평신도 설교를 금지하는 것을 사제의 직분에 불복종하는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런 범죄자들을 적그리스도로 대우하고 공개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도파는 수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여성의 설교권을 긍정했는데, 예를 들어 누가복음 2장 36-38절에서 예수의 할례 때 안나 선지자가 여성 설교자를 옹호한 것으로 발도파는 인용했습니다. 베르나르는 반박에서 안나가 성전에서 예언을 했을 뿐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고 썼고, 어떻게든

들을 구분했습니다. 13세기에 발도파에 대한 박해는 점점 더 기민하게 증가했습니다.

13세기에 여행은 주로 상인, 음유시인, 세일즈맨, 그리고 길에 있을 이유가 없는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13세기 중반에는 여성 설교자에 대한 박해가 너무 흔해져서 발도파 여성들은 덜 공개적이지만 여전히 동등하게 역동적인 사역 형태로 신앙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발도파 공동체 전체는 남자들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주된 목적을 가리기 위해 이발사, 의사, 행상인, 장인으로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즉시 의심을 받지 않고 대중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도파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박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그들은 외부 세계에서는 덜 눈에 띄지만 제자 공동체로서 그들의 증거에 꼭 필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전에 여학생회가 하는 역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호스피스 중 많은 곳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여학생회는 순회 목사를 준비하기 위한 숙소를 제공했고 발도파 신학교와 학교의 선구자가 될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 협력 역할은 발도파 신앙 공동체의 증거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고, 발도파가 1530년대까지 목사를 파견한 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방금 전 설교한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고, 그 기간의 역사적 배경을 더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발도파의 역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케빈 프레데릭 박사입니다. 이것은 7번째 세션, 진실로의 회귀, 여성 설교자입니다.